
UNECE/ILO 소비자물가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

2010. 5.
(스위스, 제네바)

통 계 청 

UNECE/ILO 소비자물가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(요약)

□ 회의개요

○ 목적

주제별로 각국 작성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확한 지수작성방법 마련

○ 기간 : '10.5.10(월)~5.12(수)

○ 장소 : 스위스 제네바

○ 출장자(2명) : 김경희(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), 정미옥(통계개발원)

□ 회의 주요내용

○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, 네델란드 등 58개국의 통계청 및 중앙은행 대표, IMF, OECD, EUROSTAT, EC 등에서 104명 참석

○ 8개 주제에 대한 workshop 및 전체 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논문 발표 및 토론

* scanner data, HICP(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), 소비자물가의 금융서비스 측정, 계절품목의 품질조정, 소비자물가방법론, 이용자그룹, 주택가격지수 등

○ 2012년 소비자물가 전문가회의 및 오타와회의(2011년 11월 뉴질랜드 개최 예정) 주제(안)에 대한 의견 수렴

□ 출장자 활동

○ 우리나라 인터넷 거래가격 반영에 대한 논문 발표(김경희)

* Reflecting consumer's e-commerce change in the Korean CPI

○ 금융서비스 및 계절품목 처리방법에 대한 우리나라 사례발표 및

① UNECE/ILO 소비자물가 전문가 회의

- **(특징)** UNECE/ILO 공동주관 소비자물가 전문가회의는 2년마다 열리는 정기 회의로 주요 사례 및 현안에 대해 각국 소비자물가 전문가 의견청취 및 토론

* The joint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(UNECE)/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(ILO) on Consumer Price Indexes

- **(기능)** 물가지수 작성의 이론적, 실제적 측면에 대한 토론 및 CPI의 국제적 작성 기준과 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
- **(개최도시)** 스위스 제네바
- **(기간)** 2010. 5. 10 ~ 5.12
- **(참가자)**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, 네덜란드 등 58개국의 통계청 및 중앙은행 대표, IMF, OECD, EUROSTAT, EC 등에서 104명 참석
※ 통계청 : 김경희(물가동향과), 정미옥(통계개발원)

② 회의일정 및 주제

- **Workshop 주제(5.10일 오전)**
 - ① 스캐너 데이터 활용
 - ② 소비자물가의 금융서비스 측정
 - ③ 계절품목의 품질조정
 - ④ HICP

○ 전체 회의 주제(5.10~12)

- ① 소비자물가 방법론
- ② 주택가격지수
- ③ 소비자물가 작성 시스템
- ④ 소비자물가의 이용자 그룹

II 회의 주요 내용

-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전문가회의 홈페이지에는 발표자료 및 room document(발표없이 자료만 제출) 모두 게시되어 있으며,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정리

- 자료게시사이트 : <http://www.unece.org/stats/documents/2010.05.cpi.htm>

1 스캐너 데이터(Scanner data)

- 스캐너 데이터는 판매상품의 바코드자료를 축적하여 소비자물가에 활용함으로써 가격자료 수집 시간을 절약하고자 검토되고 있는 사항
- 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) 자료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, 2) 수집 자료의 효용성, 3) IT 기술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
- 이 방법이 적용되는 품목은 제한적이고 비용대비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, 즉석에서 회의참가국을 대상으로 적용국가를 파악한 결과, 네덜란드, 스위스, 노르웨이 3개 국가만 활용

- **(네덜란드 통계청 Mr. Jan De Haan)** 슈퍼마켓 시스템 교체비용 제공 조건으로 현재는 슈퍼마켓의 자료만을 무료로 활용하고 있으며, 전체 조사대상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, 적용하고 있는 품목도 제한적이지만 조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다른 2개 국가도 상황은 유사

② 소비자물가의 금융서비스 측정

- 대부분 국가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으며, 중개자(intermediator)가 존재하는 간접적 품목에 대해서는 측정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
 - 2008 SNA에서는 FISIM(financial intermediate service indirectly measure)을 간접 및 직접 측정을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의 금융서비스 측정은 많은 연구가 필요
- 각국에서 측정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로는 banking fee(타행송금수수료), 환율수수료(exchange fee), 증권수수료(stock broker fee), 모기지 수수료(mortgage fee), 이자(interest) 등이 있음
- 소비자물가의 작성 목적이 inflation 측정이라면 이자율의 포함여부는 논쟁 소지가 많으며, HICP의 주택가격지수와 더불어 많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고, 또한 금융서비스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 반영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
- **(한국사례발표)** 489개 품목 중 금융서비스관련은 1개 품목 2개 조사규격(연간카드회원과 타행송금수수료)가 있으며, 2010년 지수개편의 추가품목으로 주택중개수수료를 검토하고 있음

③ 계절조정품목의 품질조정

- 계절조정품목의 품질조정은 다양한 사례 및 처리방법이 있어 소비자 물가의 오랜 기간 동안 단골 토의주제임
- 각국마다 현실에 적합한 품질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쉽게 일치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나,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품대체이므로 이에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

④ HICP

- EU국가의 inflation 비교에 사용되는 물가지수로 20년 전에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, 여러 국가에 적용되는 물가지수인 만큼 품목이나 작성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 후 결정되며, 자가 주거비 포함 여부가 최근 큰 이슈임

⑤ 소비자물가 방법론

- **(우리청 발표)** 2005년부터 소비자의 새로운 구매형태인 전자상거래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, 2010년 기준 개편에 대비한 품목선정방법 및 소비자물가지수 영향 등을 설명
 - **(말리, 가중치 작성 방법 및 자료원 질문)** 전자상거래조사와 도소매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작성하고 있으며, 두 조사 모두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어 자료원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음
 - **(핀란드, 제조국 구별여부 및 일반상점조사 결과 비교 질문)** 제조국을 구별하여 조사할 수 없으며, 대체적으로 일반상점가격보다는

낮은 지수증감을 보이고 있음

- (레바논, 인터넷 수집자료의 정확성 여부 질문) 홈페이지 갱신여부는 항상 파악하고 있고 상품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은 3-5개의 쇼핑물을 통하여 가격을 파악하고 있어 가격수집의 정확성 확보에 노력
- (가나) 가나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한 가격 수집을 위하여 매월 850달러를 조사상품 구입에 쓰고 있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, 조사협조를 위하여 조사대상처에 답례품을 배부하고 있으나 거부하는 대상처에 대한 통계법 적용(처벌 조항)여부로 고민 중에 있음

⑥ 주택가격지수

- 주택은 1) 개보수(renovation)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며, 2) 거래로만 그 가격을 측정할 수 있으며, 3) 항상 가격이 변하며, 4)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로 토지포함여부에 따라 주택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며, 5)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등 가격 측정에 어려움이 많음
- 주택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1) 중위수 또는 평균측정, 2) 헤도닉 회귀모형, 3) 반복거래 판매가격, 4) 평가액 기반 등 다양한 측정방법이 있으며,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상이
- (영국)에서는 등록자료(registered data)를 사용하는데, 거래와 등록의 시차가 있어 시의성 있는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

- **(네덜란드)** 헤도닉적용시 적절한 독립변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, 세미로그모형(종속변수에만 log를 취함)이 일반 모형에 비하여 더 타당하다고 발표
- **(일본)** 주택가격모형(lognormal)을 구하여 보여주었으며, 이를 통하여 주택가격의 이상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, 이를 통한 주택시장거품(bubble)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을 강조
- **(남아공)** 임대차 상당액범으로 계산한 자가주거비의 반영과 전체 가구의 26%수준의 informal housing에 대해 발표
 - informal housing은 일반적인 가구에 비하여 저렴하여 주택가중치가 낮게 나타나며, 정확한 가격 파악 경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조언을 구함
- 주택가격지수의 핸드북(Residential Property Price Indices) 작성은 2009년 5월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, 현재까지 작성된 3장~7장 초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2011년 2월 워크샵 후 2011년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
 - ※ 3장(Uses of residential property Price Indices), 4장(Elements for a conceptual framework), 5장(Methods), 6장(Data sources), 7장(Methods currently used)
 - 핸드북은 CPI매뉴얼(2004)와 같은 권고사항이 아닌, 주택가격지수의 참고사항으로 활용이 목적임

7 소비자물가 작성 시스템

- **(CARTAC)** CARTAC에서 카리브해 7개 국가의 지수 개편시 통계 기술을 제공하였고, PIPS(Price Index Processor System)를 이용한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발표
 - * Caribbean Reg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er

- PIPS는 IMF가 개발한 물가지수작성 프로그램으로, UNECE가 배포하고 있음
- PIPS는 MS기반으로 된 프로그램으로 jvons를 이용한 하위단계의 지수 작성, 품질조정, 미출회품목가격에 대한 imputation 등이 가능
- 영어 버전만 있지만 code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언어로 변경이 용이하고 엑셀과 호환성이 좋음

* 프로그램 다운로드 : http://www.unece.org/stats/downloads/SW_CPI_PPI/pips.html

- **(AFRISTAT)** 아프리카국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기구(현재 19개 국가 가입)로서, 가입국가들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, 재원 등에 대해 발표
 - 전통 및 통상적인 판매단위의 상이로 발생하는 측정에 대한 품질 조정문제가 심각하며, 또한 상품별(공업제품과 농축수산) 가격범위 (또는 분산) 차이로 인한 영향도 큼

⑧ 소비자물가의 이용자 그룹

- **(영국)** 물가지수는 사용목적에 따라 HICP(또는 영국 CPI)와 RPI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,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Advisory committee를 구성(30여명)하여 운영하고 있음
- **(독일)** 유로화도입, 2007년 부가세 인상, 식료품가격상승, 휘발유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, 이용자의 이해 및 신뢰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형 소통방법(interactive communication)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
 - 체감물가인상(perceived price increase)와 공식인플레이션증가(official inflation rate)의 차이에 대해서는 ① 공식 CPI는 다양한 가격의

평균이며, ② 600여개 품목을 사용하였고, ③ 품목별 가중치가 상이하
여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

- 홈페이지에는 그래픽을 이용하여 개인별 물가상승률 구하기, 물가
변동 알아보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

* 독일 홈페이지 : <http://www.destatis.de/jetspeed/portal/cms/Sites/destatis/Internet/EN/Graphics/SVG/IndexrechnerSVG,templateId=renderSVG.psml>

- **(호주)** 호주의 소비자물가는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어 자국내 경제
학자 및 IMF로부터 매월 작성을 권고 받고 있으나, 예산확보가
가장 어려운 문제임

III | 2012년 회의주제(안)

- 2012년 소비자물가 전문가 회의 주제(안)으로 6개 사항을 제안

① 주택가격지수 : RPPI 핸드북 및 주택관련 현안

② 물가작성시스템 : ICP와 OECD-PPP, 다양한 목적의 CPI, 국민
계정과의 CPI 비교 등

③ 가격자료수집 방법 : scanner data 등

④ 서비스에 대한 품질조정

⑤ 추정치 변경

⑥ 가중치 자료원

- 2011년 뉴질랜드에서 오타와 소비자물가 전문가회의가 개최될 예정